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청년취업반
‘67명 합격 행진’

정읍시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이 2023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공무원·금융기관·공공기관 합격자 67명을 배출했다.

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지 않고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전문학원에 위탁해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성과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23년 6명을 시작으로 2024년 14명, 2025년 22명이 합격한 데 이어 올해는 7월 말 기준 25명이 합격했다. 올해 합격자는 지난해보다 3명 늘었으며, 공무원 24명과 공공기관 1명으로 집계됐다.

준비반은 전문 강사진의 체계적인 강의와 수강생별 학습관리, 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제공해 실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계화면, 관내
제조작업 실시

부안군 계화면은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주요 시가지 가로화단, 주요 도로 등 관내 생활권을 중심으로 제조작업을 실시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조작업은 계화면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적십자봉사회, 포순이 어머니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요 시가지 가로화단과 주요 도로 등 잡초가 무성한 구간을 집중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주민과 방문객에게 깨끗한 경관을 제공하고자 한다.

참여자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현장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열린 군정 시작

첫 군정소통회의, 유튜브로 공개... 정책 결정과정 공유 · 토론 중심 행정 정착 앞장



고창군은 앞으로 매월 첫째주 기존 확대간부회의를 군정소통회의로 전환해 유튜브 공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군 저수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양수기, 송수호수 등 가뭄 대책 장비 사전 확보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폭염과 가뭄은 군민의 생명 및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재난 상황”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농작물 피해와 생활용수 불편이 없도록 가뭄 해갈 시까지 비상급수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폭염대응 외에도 군민협력지원금(1인 30만원) 지급준비,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근절, 여름방학 어린이·청소년 돌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군은 이번 군정소통회의를 시작으로 정책 형성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함께여는 미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군민과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군정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의 여름 ‘제대로 즐겼다’

‘2026 정읍 물빛축제’ 성황리 폐막... 3일간의 일정 마무리

정읍의 한여름을 물과 빛, 음악으로 물들인 ‘2026 정읍 물빛축제’가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올여름, 정(井)했어!’를 구호로 내건 이번 축제는 지난달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정읍천 미로분수와 벽천분수 일원서 도심형 여름축제로 펼쳐졌다.

개막일인 지난달 31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록밴드 국카스텐과 케이팝(K-POP) 그룹 하이키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8월 1일에는 육종완밴드, 마지막 날인 2일에는 하하·스컬이 공연을 선보이며 정읍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궜다.

축제 기간에는 전자음악(EDM) 파티와 춤바, 청소년 춤 공연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행사장에 마련된 먹거리 판매 공간과 이동식 음식 판매차량(푸드트럭)도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주변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했



다. 차량 통행을 제한해 보행 중심의 축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행사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회 회원, 자율방범대원도 주요 교차로에 배치됐다. 시는 우회도로와 인근 주차장을 안내해 차량 통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도 힘썼다.

연일 이어진 폭염에 대비해 축제장에는 무더위쉼터와 얼음 생수가 마련됐다. 응급의료반과 구급차를 상시 배치하고 물놀이 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새마을회, 전국 최고 반열 올라

‘2025년도 시군구 종합평가’서 A등급 획득

정읍시새마을회(회장 이경연)가 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 ‘2025년도 시군구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새마을회를 대상으로 조직관리와 재정자립, 중점운동 등 7개 분야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정읍시새마을회는 모든 평가 지표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현장 중심의 실천사업과 체계적인 조직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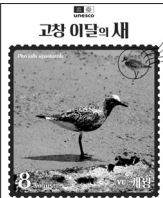
정읍시새마을회는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홀몸어르신 영양식 반찬 나눔’을 통해 23개 읍면동 1500여 가구에 반찬을 전달했고, ‘김치문화 사랑운동’으로 배추 2400여 포기, 김치를 직접 담가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5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는 대통령 훈장을 비롯해 정읍지역 유공 지도자 14명이 수상하며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8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개펄’ 선정



고창군이 8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개펄(학명 Pluvialis squatarola)’을 선정하고, 세 계자유산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철새 이동로로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펄은 북극권인 러시아와 북미 툰

드라 지역에서 번식하고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월동하는 대표적인 나그네새다.

우리나라에는 봄과 가을 이동 시기에 찾아오며, 고창갯벌에서는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먹이를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나윤국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개펄은 매년 고창갯벌을 찾는 대표적인 나그네새로, 건강한 갯벌 생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물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근농육성재단, 1군민 1장학금 후원제와 갖기 홍보

문체사업소 찾아 캠페인 활동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서는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찾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후원 참여 확대를 위한 1군민 1후원제와 갖기 홍보 릴레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캠페인에서 직원들의 홍보를 통해 주민과 문화예술인, 체육 관계자 등이 후원제에 가입할 경우 후원 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인센



티브를 지급하는 내용도 안내했다. 이미지 사업소장은 “장학금 후원은

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교육지원청, 여름방학 학습코칭 캠프 운영

초·중학생 대상 수학·영어 집중 프로그램... 27일까지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형심)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8월 7일까지 부안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에서 ‘2026. 여름방학 학습코칭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

생들이 방학을 계기로 뒤처지는 악순환을 끊고자 여름방학 학습코칭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18명, 중학교 1·2학년 18명 총 36명이 참여한다.

초등 과정은 수리력·기초연산 등

수학 기본기 정립과 학습코칭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등 과정은 핵심·기초 개념 학습 및 수학 학습전략 코칭과 부안교육지원청 원어민 교사가 참여해 활동 중심 기초 영어 회화 수업이 제공된다. 중등 원거리 학생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 차량 6대 서비스가 지원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극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극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